

■ 제주, 6월 코로나19 확진 인구 100만명당 20.9명 감염률 전국 최고 '불명예'

대도시 서울 19.7명·대구 19.2명·경기 12.9명 확진 9일 하루 9명 신규확진... 5명은 감염경로 오리무중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한자릿 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 들었지만 6월 감염자 수 폭증의 영향으로 인구 100만명당 발생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5시 기준 9명(1159~1167번)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167명으로 늘었으며, 이날 들어선 12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들어 제주에서는 6일 연속 두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7일 기점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제주지역 감염재생산지수가 '유행 확산'을 뜻하는 1.1명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달 확진자 수 폭증으로 주간 기준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제주가 20.9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서울 19.7명, 대구 19.2명, 경기 12.9명, 인천 5.7명 등 대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9일 신규 감염자 중 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다.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감염 경로 미상 확진자 5명을 제외한 4명 중 3명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159번과 1164번은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자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67번도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자가 격리 도중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받았다. 도방역당국은 자가 격리 기간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추가 전파 우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65번은 앞서 전날 확진된 1156번의 가족으로, 최초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감염 경로 미상 확진자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상민기자

'음주 악명' 탐동광장 일시 폐쇄되나

안동우 제주시장 검토 지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등 속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제주시 탐동광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9일 오전 주간 간부회의에서 일시적으로 탐동광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안 시장은 "여러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만큼 여름철을 맞아 야외광장으로 시민들이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탐동광장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간격 유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운동과 산책보다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탐동광장 일시 폐쇄 검토는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발생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제주지역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주간발생률을 고려하면 20.9명이 감염돼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6월에만 지금까지 1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올해 들어서는 737명이 확진됐다. 제주지역 감염재생산지수는 '유행 확산'을 뜻하는 1.1명으로, 감염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탐동광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여름 행락철과 겹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몰리고 있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6월 2일자 5면 보도>

운동이나 산책객들도 있지만 대부분 삼삼오오 모여앉아 취식·음주를 하면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것

은 물론 마스크 미착용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돼 코로나19방역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 관련부서는 탐동광장을 폐쇄할 경우 사전 점검사항과 여러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탐동광장 마저 일시 폐쇄하면 해변공원장이나 탐라문화광장 등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등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한 현재 탐동광장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PET트럼과 그물망 등 시설물 보강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자치경찰단과 새벽시간대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휴가철 시작 전 49만명분 우선 배정을"

원 지사 9일 대정부 건의

제주도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에서 이른 시일 내에 집단 방역이 형성되도록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건의문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휴가철을 맞아 방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제주도는 전례 없이 감염자가 적었지만 여행객 증가로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최근엔 확진자 수가 연일 두자릿수를 넘고 있다"고 대정부 건의 배경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민 전체의 공간으로 청정 제주의 방역이 흔들리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제주의 방역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단면역 수준인 제주도민의 70%, 백신 약 49만명분을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백신 우선 접종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는 제주에 하루 3만~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섬 특성상 확진자가

한꺼번에 늘어남엔 환자 이송과 의료 인력 수급에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전례청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도민 우선 백신 접종 방안을 건의한데 이어,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전남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시 갑)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도민 우선 접종을 건의했다.

관건은 정부의 수용 여부다. 현재 백신 물량 배정과 접종 일정은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하고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가 없으면 도민 우선 접종이 불가능하다. 이상민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송은범기자

30대 관광객 수갑차고 9시간 도주

렌터카 음주 운전하다 경찰 현행범 체포 불응

경찰의 체포에 불응해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던 30대 관광객이 약 9시간 만에 검거됐다. 도주 이유는 음주 운전이었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18분쯤 제주시 구

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던 관광객 A(31)씨를 발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측정을 거부했다.

공방이 20분 가량 오가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팔한 쪽에 수갑을 채웠고, 그 순간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끝에 도주 다 음날인 9일 오전 8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 위험"

제주지역 택배노동자 70여명 총파업 동참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총파업이 진행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사회적 합의·단체협약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는 택배 노동자 400여

명이 있는데,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의 17.5%인 70여명이 동참한다.

택배노조는 "최종 사회적 합의 논의가 결렬됐다. 택배사들은 과로사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택배사들은 1년 동안 저단가 택배를 유지해 물량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것

인데, 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 택배 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반면 택배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수십 명이 과로사를 당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결국 단결된 노동조합의 투쟁만이 택배 현장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총파업 이유를 밝혔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필릭산: 토양의 pH 높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활과 효과를 향상시켜줌

박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 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회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돌 출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WIDEX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